

近代化理念과 經濟發展

— 「뵤르달」의 『아시아의 드라마』*에 關連하여 —

林 鍾 哲

I

戰後世界에 있어서의 國際經濟關係 특히 低開發國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關하여 꾸준히 注意를 기울여왔고 이 問題에 關한 몇 개의 著作을 발표한 Gunnar Myrdal 이 「아시아」 諸國을 직접 答사하면서 實證的인 研究을 시작한다고 進해졌을 때 비단 學界뿐만 아니라 政治, 社會 등 모든 活動分野에 있는 知識人들은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그 結果를 주목해 왔다. 그것은 Myrdal 이 *An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1956 에서 시작하여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1957 그리고 보다 더 次元을 높여 *Beyond the Welfare State*, 1958 등에서 보인 바 있는 獨創的인 分析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Dag Hammarskjold 나 Trygve Lee 를 낳은 北歐의 傳統에 부끄럽지 않게 Myrdal 역시 그 不偏不黨한 學問的 및 實踐的인 태도, 開發과 低開發問題의 意義 및 그 可能한 歸結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과 理解, 그리고 問題에의 接近 및 分析에 있어서 그가 받고 있는 反動的도 아니며 過激하지도 않다는 立場 등이 前著에서 試圖한 低開發問題에 대한 循環的, 累積的인 因果關係의 原理(principle of 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의 適用과 아울러 定說이 없다시피한 이 主題에 대한 研究에 期待를 갖게끔 하기에 충분한 素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10년이란 세월을 소요했다고는 하지만 Myrdal 의 研究結果가 2224 면이라는 방대한 크기를 가진 세권의 책자로 나오리라고까지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Myrdal 의 이 책은 그 방대한 量만 가지고서도 問題가 되기에 충분하다.

國際社會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키고 있는 이 책에 대하여 Newsweek誌는 그러나 아무런

* Gunnar Myrdal,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Panteon, New York, 1968.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評은 보기에 따라서는 옳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늘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결국 이 책에 서는 이 主題에 관한 종전의 그의 연구 특히 앞서 言及한 세 著書에서의 연구결과가 하나로 統合되어 整然한 體系를 가지고 再現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가지 의미에서 Newsweek 誌의 評은 옳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이 전혀 새로운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 첫째 이유는 部分品の 組合은 기왕에 알려진 부분품과는 전혀 새로운 財貨의 창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前三著에서 발견, 진술된 部分品이 이 책에 있어서는 近代化理想(modernization ideal)이라는 missing link 의 발견을 통하여 統合될 수 있었다. 즉 「아시아」의 低開發을 타파하여 近代化로의 累積的 上昇過程을 觸發시킬 결정적인 要因으로서 近代化理想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言而蔽之하여 「아시아」의 現實은 歷史的 必然이 아니라 달리 강구되었더라면 현재와는 다른 현실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歐美列強의 植民地主義政策이 원인이 되어 下降的 累積過程이 작용한 결과이나 앞으로는 近代化理想의 實踐이 上昇的 累積過程을 촉발시켜 貧困과 停滯에서의 脫皮를 가능케 하리라는 『아시아의 드라마』의 思考基調도 결국은 前著에서 missing link 로 남아있었던 自國의 필요에 적합한 明示的인 價値前提 즉 近代化理想의 發見, 定立을 통하여 가능하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前著의 단순한 合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II

構成으로 본다면 *An International Economy*에서의 先後進國間의 不均等發展을 격화시키는 累積作用에 대한 理論分析 및 소위 第2級의 特化(international specialisation of second grade)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결책, 그리고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에서 展開한 明示的 價値前提의 必要性和 그 機能 및 國民國家政策과 國民的 經濟計劃樹立, 끝으로 *Beyond The Welfare State*에서 구분한 經濟計劃樹立의 類型化 및 그 含蓄, 그리고 民族主義의 意義 및 機能등의 論議가 南「아시아」의 政治, 經濟, 社會, 人間등 주요한 部門에 있어서의 fact findings의 기초위에 近代化理想이라는 明示的 價値前提의 原理에 맞게 統合되어 하나의 體系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시아의 드라마』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는 극단적으로 간단화되어 몇개의 主要要因의 作用으로 집약된다. 이를테면 政治的 問題로서는 植民地政策의 歷史的 產物인 造作된 國境을 둘러싼 문제와 植民地體制下에서 처음 導入된 개념인 國竟 및 民衆기관 의식에서 派生되는 華僑의 문제

로 간추려지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資源의 不足과 市場組織의 未備 그리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組織의 不備, 外部로의 富의 流出, 低位의 健康 및 知識水準 등이 例擧되고 있다. 이러한 赤裸裸한 사실위에 循環的, 累積的 因果關係의 原理를 적용하여 Myrdal이 내리고 있는 結論은 政治에 있어서보다도 經濟에 있어서는 더욱 樂觀的인 것이 못된다. 經濟的 至福을 지향하는 동일한 노력의 과정에 있어서 西歐가 걸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南亞는 걸고 있다고 Myrdal은 주장하면서 그 根本原因의 하나로 그는 初期條件의 差異를 생각하고 있다. 自然資源의 賦存, 氣候, 人口, 外國市場의 크기, 外資導入, 交易條件의 差, 所得水準, 社會構造, 국민의 態度, 技術과 熟練등을 들면서 특히 西歐의 開發過程에 있어 成長을 무조건 촉진시켰던 技術은 저개발국에서는 오히려 開發의 곤란을 크게 하고 開發能力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先進國의 開發過程의 類型을 判異하게 하고 있는 것은 그가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등에서 그처럼 강조한 바 있던 市場勢力의 자유로운 作用을 통하여 規制됨이 없이 작용하는 不平等化要因의 國際的인 作用이 아닐까, 이 要因에 대한 強調은 前三著에 있어서보다 매우 후퇴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表面的인 悲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인 점에서 그가 事態의 進展을 낙관하고 人類의 善을 信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그가 현재의 國際間的 不平等과 저개발국의 빈곤을 타파하여 平等과 繁榮으로의 출발을 가져오는 契機로서, 그 始發因으로서 近代化理念의 추구가 갖는 意義를 높이 評價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족히 알 수 있다.

III

“理想的으로는 저개발국가는 有用한 일체의 지식을 이용하여야 하나 그들 자신의 價値와 條件에 알맞도록 그들 자신의 특수한 技術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G.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p. 98), “선진국의 傳承된 經濟理論 역시……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고 그들자신의 문제와 利害에 적합하게끔 改造하지 않으면 안된다”(ibid., p. 99); “大覺醒의 시대에 저개발국가의 경제학도들이 선진국가의 경제사상에 있는 偏好에 사로잡혀 헤메고 있다면 이는 悲痛한 일이다. 그 偏好는 선진국학자들이 合理的으로 되려고 하는 노력은 이를 방해하는데 그치겠지만 低開發國의 학자들의 知的인 鬭爭에는 거의 致命傷을 줄 것이다”(ibid., p. 101); “저개발국가의 경제학도들은 그들의 相異한 合理化要求에 相應하는 그들자신의 새로운 偏好로써 급속히 裝備하고 이러한 偏好를 새로운 形而上學的 體系속에 구축함으로써 이를 강화하는 것이 正常的이며 自然的이다. …

이를 행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實踐的이고 政治的인 推論을 이끌어낼 때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먼저 諸事實 및 因果關係를 확증하고 分析할 때에도 明示的인 價値前提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다”(ibid., p. 103); “忠實한 遵奉者가 된다는 것은 有能한 反逆者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이다”(ibid, p. 104)라고 까지 극언하면서 저개발국 자신의 필요와 合理的 要求에 맞는 價値前提의 필요성을 力說하여왔던 Myrdal은 『아시아의 드라마』에서는 近代化理念이라는 普遍的인 價値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 合理性, ② 開發意欲 및 開發計劃, ③ 生産性上昇, ④ 生活水準上昇, ⑤ 社會的 및 經濟的 平等의 실현, ⑥ 制度改革 및 態度變化, ⑦ 國民의 統合, ⑧ 民族의 獨立, ⑨ 狹義의 政治的 民主主義 (이는 民主主義의 制度的 形式이 갖추어졌는가를 의미한다.) ⑩ 大衆化된 民主主義 (이는 權力이 國民의 구석구석에까지 分散된 것을 의미한다.) ⑪ 社會的 規律 및 民主的 計劃樹立등 열하나가 곧 그것인데 이러한 近代化理念은 반드시 戰後的인 것이 아니고 獨立戰爭당시에도 두드러졌던 것이라고 Myrdal은 말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여섯번째의 態度變化에 관하여 Myrdal은 近代化理念의 실천을 추구하는 소위 「新人間」, 「現代人」, 「產業人」, 「새나라의 市民」 또는 「科學時代人」은 「아시아」의 傳統的인 인간과는 다른 類型에 속하는 사람이며 그가 갖출 資質은 效率的이며 부지런하고 秩序있고 정확하며 검소하고 치밀하고 정직하며 行爲決定이 合理的이고 變化를 受容할 태세를 갖추었으며 激變하는 세계에서 기회포착에 민첩하고 情熱的으로 企業을 일으키며 성실하고 自信을 가지며 協同精神이 강하며 長期的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열세가지라고 한다. 이것은 Jan Tinbergen이 *Lessons from the Past*, 1963에서 저개발국가의 指導者는 첫째 物質的인 富에 관심을 가지며 둘째 장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세계 위험을 무릅쓸 용의가 있어야 하며 네째 技術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다섯째 持續性을 보여야 하며 여섯째 어려운 일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일곱째 많은 사람과 協同할 수 있어야 하며 여덟째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開放하여야 하며 끝으로 복잡한 現象을 論理的으로 分析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기는 하나 좀더 包括的이며 까다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近代化理念은 원래는 西歐的인 것이며 따라서 「아시아」의 諸國民에게는 生疎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밖의 價値評價와 반드시 相剋的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컨대 극단적으로 西歐化된 저개발국가의 엘리트들도 자기 나라의 역사, 문화, 종교, 民俗등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Nehru가 『印度의 發見』에서 말하듯 “과거는 항시 우리와 함께 있고

현재의 우리자신 및 우리의 富도 과거에서 받은 것”이라는 執念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역사를 개척해나가면서도 한 民族은 그자신을 과거와 同一視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近代化理念의 근거를 옛날의 宗教的 敎說에서 찾는 움직임이 있는 것등은 近代化理念과 옛날부터의 고유한 價値前提와의 사이의 相生關係를 나타낸다. 한편 大衆化된 卑俗한 價値에 있어서의 相剋關係가 다소 두드러진다고 Myrdal은 관찰한다. 소와 돼지에 대한 禁忌가 일반적으로 食糧問題解決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言語에 대한 執着이 印度의 言語暴動에서 보듯 摩擦과 葛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등은 그 현저한 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層이외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價値觀이 近代化理念과 반드시 相剋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말레이」人과 中國人 및 印度人등 外來人의 수요가 반반인 「말레이」에서 「말레이」語를 國語로 制定하는데 아무런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 實證이라고 Myrdal은 주장한다.

그러나 전혀 다른 歷史性을 가진 社會에서 자라난 Myrdal로서는 아무리 不偏不黨한 입장에서 同情的으로 고찰하였다고 하지만 例證에 있어서 다소 皮相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음을 우리는 본다. 예컨대 엘리트層만 아니라 大衆의 상당한 부분까지도 西歐化한 「필리핀」에 있어 體系있는 言語로까지 발달되지 않은 原始的 土語인 「타가로그」(Tagalog)語를 國語로 제정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내셔널리즘의 非合理性을 나타내는 極端的 表現으로서 거기서는 非合理的인 내셔널리즘에 대하여 Myrdal이 인정하는 對抗力(counterbalancing power)으로서의 長點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역사를 개척해나가는” 過程에서 “한 民族이 그자신을 과거와 同一視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과연 Myrdal이 규정한 近代化理念의 實踐에 有害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한편 近代化理念의 첫째 특징인 合理性도 무엇을 基準으로 한 合理性인가 하는데 따라 意味內容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餘他的 特徵과 마찬가지로 次元에서 一義的으로 論할 수는 없다. 나머지 열가지 특징이나 혹은 「新人間」등의 資質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는 西歐의 價値前提의 根源인 物質主義의 無條件的 受容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合理性이란 價値는 한 民族이 國威宣揚(national prestige)을 위하여 誇示 生産(conspicuous production)까지도 서슴치 않는, 低開發段階에 있어서는 傳統的 價値와의 矛盾이 가리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開發의 暴風과 怒濤가 지나고 나면 보다 날카롭게 相剋될 가능성도 豫見될 수 있다.

IV

「아시아」의 政治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Myrdal은 대담한 單純化를 試圖하고 있다. 그는 民族을 단위로 한 社會로 구성, 營爲되는 사람들의 생활 및 그 社會 사이의 政治的인 社會關係에는 최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소련이 강대국으로 발전하면서 中歐 및 東歐에 세력을 확대시키면서 浸透해 들어왔다는 運命的인 변화와 둘째로 中國이 經濟的 停滯와 數世代에 걸친 政治的 無能 및 無政府狀態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 강력하게 진출하였다는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소련의 등장보다도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Myrdal은 생각하고 있으며, 세계로 中共의 진출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 변화로서 남「아시아」 6억의 人民이 제 2차대전의 결과 「유럽」의 植民地支配에서 해방되었다는 歷史的 事實이라고 한다.

植民地主義는 첫째 帝國主義列強이 그들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法, 行政 및 敎育制度를 통하여 창조된 엘리트層이 西歐的 價値인 正義, 自由 및 機會均等이라는 理想을 배워 이를 植民地解放을 위한 鬪爭의 武器로서 裝備하였다는 것, 古典派經濟理論이 敎說한 自由와 平等이 帝國主義와 날카롭게 矛盾 對立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急進主義者들의 攻擊이 帝國主義列強의 내부에서 점차 강력해져 갔다는 것, 第 1次大戰爭 불가피해진 植民地被支配人의 動員은 支配者와 被支配者로서가 아니라 피홀려 싸우는 同僚戰友로서 뒤섞이게 하는 사이에 자연히 白人優位의 神話를 붕괴시켰다는 것, 和蘭같이 철저하고 조직적인 收奪機構를 마련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植民地經營의 이익은 植民地에 定着한 白人과의 交易에서만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이상 植民地형태의 隸屬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제 2차대전이후에는 식민지의 유지, 경영을 위한 軍事費 및 警察費用이 激增하여 採算性이 없어졌다는 것, 식민지에서의 民族自決運動이 美國 및 소련의 反植民地主義政策에 힘입어 활발화함으로써 早期의 獨立賦與의 代價로 既往의 投資權益이나 옹호하는 편이 유리해졌다는 것등의 원인으로 帝國主義的 植民地政策은 解體過程에 들어갔다.

그러나 植民地制度의 清算은 國境紛爭이란 政治的 遺産을 남겼다고 Myrdal은 말한다. 「아시아」新生獨立國의 境界는 帝國主義的 植民協定의 결과이지 歷史的 必然과는 다른 것이다. 「인더스」江과 「케샤워」溪谷사이의 地域, 「캐쉬미르」地方, 특히 中印國境戰爭의 씨가 된 「라다크」地方, 인도 및 소련과 접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재의 境界線, 「네팔」, 「부탄」, 「시킴」, 「아삼」 地方의 境界선, 인도의 東쪽邊境保障때문에 생긴 「버마」의 英國植民地化

와 「버마」國境의 造作된 確定등 모두가 그 實證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만일 「나폴레옹」戰爭의 결과 화란의 東印度植民地가 再分割되지 않았다라면 南「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聯邦을 합한 거대한 국가가 탄생하였을 것이라고 Myrdal 은 말한다.

國境문제와 아울러 「아시아」政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華僑의 존재를 Myrdal 은 들고 있다. 이역시 植民地體制의 遺産으로 國境과 民族이 문제되면서부터 야기된 것인데 華僑가 大國人으로서, 支配民族으로서 原住民과 同化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그결과 差別化된다는 데서 불씨가 된다. 결국 差別化가 심할수록 그들은 「트로이」의 木馬가 될 위험성이 더 커지는데 近代中國의 傳統的 政策은 華僑전부를 自國民으로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政策은 自由中國에 의해서는 여전히 修正됨이 없이 추구되고 있음에 반하여 中共은 첫째 國境問題에 있어 過大膨脹主義를 止揚하고, 다음 華僑문제에 있어서도 國籍選擇의 자유를 부여하고 柔軟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로써 「아시아」에는 平和共存的 近代化의 새幕이 올랐다고 Myrdal 은 주장한다.

한편 南「아시아」가 中共 및 共產主義에 대한 保壘가 되지 못한 죄는 「프랑스」와 화란에 있다고 한다. 佛領「인도차이나」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보듯 제 2 차대전후 植民地解體過程에서 수행된 獨立戰爭을 통하여 共產黨은 合法的인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는데 이는 英國植民地에는 없었던 일이었다. 事態를 이렇게 만든데는 미국의 책임도 크다고 한다. 처음 미국은 植民地獨立戰爭에 대하여 冷淡한 태도를 취하더니 이윽고 對佛軍援을 시작하였고 1954 년의 「제네바」協定 이후로는 차츰 直接介入의 度を 크게 하여 “만일 「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시아」人끼리의 싸움으로 그치게 하고 우리는 自由陣營편을 支持하기만 하면 된다”던 미국정책은 붕괴하였다. 그리하여 Myrdal 은 오늘의 南「아시아」에는 歷史的 必然이란 없으며 그것은 달리 追求되었으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과거 植民帝國들의 植民地政策의 결과라고 날카롭게 批判한다.

이같은 대담한 單純化에 의한 설명을 政治 및 政治理論에 관한 門外漢으로서 論評할 수는 없으나 한가지 華僑와 原住民과의 不斷한 알력과 마찰을 政治作用 및 民族性에 대부분 歸結시키고 있는 것은 經濟學者로서의 Myrdal 에 대해 약간 意外的 느낌을 갖게 한다. 南「아시아」에 있어서의 華僑란 民族性이나 政治思想보다는 經濟的 支配者 및 直接的 收奪者로서 「버마」 및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印度人과 같이 또는 최소한도 middle man 으로서의 反土着民的 機能때문에 差別化되고 隔絶化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그들이 歸化하여 中國國籍을 버리더라도 經濟的 民族主義가 창궐됨에 따라 더욱 큰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國籍포기후의 僑胞에 대한 여전히 差別化와 이로

인한 마찰 그리고 「수하르토」 쿠데타후의 「인도네시아」에서의 共產主義者를 芻蕘한 華僑의 大量迫害같은 實例를 볼 때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V

經濟的 現實의 分析에 있어 Myrdal은 매우 悲觀的이다. 우선 農業生産性의 상승이 생활 수준향상 및 工業化支援을 위한 絶對條件인데 남「아시아」에서 이 조건은 충족되지 못하고 人口增加로 인한 零細化때문에 오히려 階級隔絶만 크게 하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대의 농업은 粗放·集約 그어느 것도 아니다. 人口/土地比는 크면서도 粗放農法을 쓴다는 奇型이 일반적이라고 Myrdal은 말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人口 대 食糧의 關係를 개선하려면 첫째 勞動投入을 提高하고 둘째 灌溉施設을 확충하고 셋째 山地를 개간하며 넷째 休耕期間을 단축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런데 첫째 방법은 小作農化를 加速化하고, 둘째 방법은 50년후 「인더스」江溪谷의 沙漠化를 豫告하는 사태를 야기시키며, 셋째와 넷째의 방법은 草原의 부족을 결과하여 들에는 家畜들이 못먹는 풀만이 남게 되어 人口過剩이 家畜過剩마저도 결과하게 된다. 印度의 現狀은 바로 그것이며 Ceylon에서도 正常的으로는 20년 내지 30년이었던 休耕期間이 15~20년 내지 8~10년으로 짧아져가고 있다고 한다.

「유럽」市場이 개척된 후 「아시아」에는 고무, 茶, 코코너트, 담배, 커피, 사탕, 香料등 非食糧換金作物을 재배하는 栽培農園이 등장하였는데 Myrdal은 그것이 과거의 食糧生産爲主 生業的 農業에 비하여 첫째 資本需要가 크고 둘째 專門化된 商業的 企業의 성격を 갖고 있으며 셋째 賃金勞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工業化의 始初로 이를 보고 工業的 農業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工業的 農業도 重稅, 海外送金, 外國勞動者雇傭등으로 그 波及效果는 크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한편 原料基盤이 적으면 輸入依存度는 반드시 커진다. 이것은 資本集約과 勞動의 質의 向上 및 勞動規律強化로만 對處될 수 있는데 남「아시아」에서는 資源도 적을뿐더러 英國, 日本과 같은 資本 및 勞動면에서의 相殺因도 없다고 Myrdal은 지적한다. 즉 一見 自然資源이 풍부한 것같은 남「아시아」도 石炭, 鐵, 水力등 本格的 工業化를 위한 原料는 적고 그나마 未加工형태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人當石炭資源은 남「아시아」의 平均은 9.5톤이고 가장 많은 나라가 印度로 1人當 175톤인데 이는 일본의 233톤이나 미국의 10,245톤보다 훨씬 적다. 鐵 역시 印度가 최대로 1人當 54.2톤, 남「아시아」 平均은 34톤인데 이에 비해 미국은 41톤이고 영국은 73.4톤이다. 끝으로 潛在水力은 「버마」가 최대로 1.01 KW 이고 平均은 0.20 KW 인데 日本은 0.25 KW 이고 미국은 0.65 KW 라고 한다. 이러한 稀少資源의 未加工輸出이 外換稼得의 主

要源泉이라는 것은 비극적이다. 「말레이」의 주석輸出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比는 1958 년의 14.2%에서 1963 년의 23.6%로 커가고 있는 것이 그 현저한 예인데 이것은 장래의 工業化를 위해 有害하다.

당초 西歐를 능가했던 「아시아」의 生産力 및 生産水準은 18 세기의 産業革命을 계기로 逆轉되었고 그후 西歐의 土着工業抑制的 植民地政策에 의해 生産력은 파괴되고 原料供給爲主의 植民地의 單一栽培가 강요되었다. 이러한 垂直的 國際分業下에서 市場勢力의 국제간 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作用을 근간으로 하는 自由貿易이 저개발국의 富를 선진국에 移轉하는 不平等深化要因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가리울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이 격화된 빈곤을 객관적인 指標에 의거하여 측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첫째 富의 對外流出로 인한 產出과 所得의 不一致, 非組織經濟部門(=生業經濟部門)의 대량적인 존재, 市場을 經營하지 않는 地主 및 高利貸의 收用, 그리고 統計不備등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 국민경제적으로 比重이 큰 農業의 相對所得이 매우 낮으며 모든 남「아시아」국가가 아직까지도 1930 年代의 生活水準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1919 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1人當所得같은 現代經濟學的인 富의 개념이 無意味할 때 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擇一的인 것으로는 消費水準의 具體的인 對象을 비교한다는 것이 있다. 食료품, 의류, 위생 시설을 포함한 住居, 保健施設, 教育시설, 情報媒體, 에너지소비, 수송등을 대상으로 할 때 1958 년에 있어 미국이 3100 칼로리, 영국이 3290 칼로리를 섭취함에 비해 「파키스탄」은 2030 칼로리, 태국은 2185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으며 食요소비는 영국이 11.7 kg, 미국이 15.5 kg 임에 반해 「인도네시아」는 1.2 kg, 인도는 2.4 kg 에 불과하며 人口 10 萬人當醫師는 영국이 104 人, 미국이 125 人임에 반해 越南은 3.4 人, Ceylon 은 22.2 人에 지나지 않으며 1人當石炭換算 에너지소비량은 영국의 4925 kg, 미국의 8042 kg 에 비해 「버마」는 49 kg 「필리핀」은 154 kg 에 불과하다. 自動車는 영국이 人口 1 萬人當 1070 臺 미국이 3922 臺임에 비해 「파키스탄」은 6 臺, Ceylon 은 96 臺에 불과한 형편이다.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癥的인 存在로서는 消費財產業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企業規模가 영세하다는 것도 들 수 있다. 印度의 경우 生産財產業과 消費財產業의 比는 35.6 : 64.4 이며 「파키스탄」은 18.2 : 71.8 이며 「필리핀」의 경우 23.0 : 66.7 이다. 한편 인도에 있어 520 萬企業중 종업원 5 人미만을 고용하는 零細企業의 수효는 500 萬이며 전체의 勞働者 1500 萬명중 1020 萬명이 이같은 零細企業에 고용되고 있다. 종업원 100 명이상을 고용하는 大企業은 520 萬企業體중 불과 4440 이며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수는 239 萬에 지

나지 않는다.

생활수준이 지극히 낮은 나라에서는 消費增加는 資本裝備의 증대없이 勞動生産性을 상승시켜 현저한 생산증가를 가져오므로 消費와 저축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또 產出高, 雇傭, 貯蓄=投資관계를 강조하는 西歐式經濟模型의 有用性은 의심스럽다고 Myrdal은 주장한다. 하기는 西歐도 그 開發初期에는 所得不均等이 확대되었지만 波及效果의 作用, 생산증대, 社會立法등에 의해 未久에 축소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아시아」에서는 不平等擴大가 高度成長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西歐의 歷史的 經驗과 같은 類型에 속한다고는 樂觀할 수 없다는 것이 Myrdal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 所得格差는 國際間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同一國內에서도 地域間, 産業間, 人種間에서 매우 크며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아시아」에서는 主要生産物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供給의 短期彈力性은 크게 可變的이므로 생산은 不安定하고 한편 栽培期間이 길므로 供給의 短期非彈力性이 커져 가격이 하락된다. 그러므로 輸出機會가 커져도 그를 통한 全面的 成長은 어려우므로 成長메카니즘을 內在化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아시아」에 있어서의 國際資本移動을 형태별로 보면 인도, 태국, 「인도차이나」諸國에는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證券投資가 컸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선 抽出産業에 대한 直接投資가 컸던 것이 특징이며 규모로 보면 매우 미미하여 1957년에는 1억달러에 불과했는데 그해 南美에 대한 투자액은 15억달러에 달했다. 輸出低調, 外資導入不振은 남「아시아」의 外換事情을 工業化努力過程에서 극단적으로 악화시켰다. 인도의 경우 1951년에 19억 7500만달러였던 外換保有는 1962년에는 6억 24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微微한 資本移動도 3분의 2가 附帶條件부의 원조이므로 Myrdal은 輸入代替와 輸入減少 이외에 남「아시아」가 뚫고 나갈 길은 없다고 말한다.

남「아시아」의 經濟的 現實에 대한 dry한 分析에서 Myrdal은 悲觀論이외의 것을 보이지 않는다. 현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는 Hans Singer가 말한 地理的 投資 (이를 Myrdal은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이래로 經濟的 孤立植民地 economic enclave라는 用語로 표현하고 있다)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植民地支配下에서의 「近代化」 또는 資本主義化에 대하여서도 土着民을 위한 貢獻을 전적으로 否認하는 *Shaping the World Economy*, 1962에 있어서의 Jan Tinbergen과 같은 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植民地體制下의 低開發國開發이 土着民의 經濟적 후생을 증대시킬수 없었던 이유중의 하나로 Hla Myint가 *An Interpretation of Economic Backwardness*, 1954. (Reprinted in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ment*, edited by A. N. Agarwala and S. P. Singh)에서 말한 “西歐

인이 頂上을 차지하고 middle man 이 그중간에 있고 底邊에는 土着民들이 있는 후진국에 典型的인 經濟的 하이에라키”의 畵마를 대체로 是認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奇異하게도 남「아시아」의 低開發문제에 대한 10년의 오랜 연구끝에 내어놓은 이 책에서 Myrdal은 다른 수많은 학자들과는 달리 別다른 政策勸告를 하고 있지 않다. 19세기의 新定着地域(Regions of Recent Settlement)이 경험하였던 바와 같은 貿易을 통한 成長이라는 古典的 發展類型的 20세기後半에서의 再現可能性을 悲觀하는 그는 Raul Prebisch가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에서 권고한 바와 거의 비슷한 線에서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우리는 共產圈과의 交易擴大가 남「아시아」諸國의 經濟發展에 미칠 有利한 衝擊에 대한 그의 期待, (1955년에 7900만달러였던 이 지역의 對蘇輸出이 1964년에는 32억 2500만달러로 4倍加되었음을 그는 指摘하고 있는데 Prebisch도 거의 같은 政策勸告를 하고 있다) (cf. R. Prebisch, *op. cit.*, Pt. II. ch. 4.), 輸入代替와 輸入減少에 관한 勸告 그리고 成長 mechanism의 內在化必要性에 대한 強調등에서 볼 수 있다. 그밖에는 西歐的 理論模型의 不適合性, 그리고 計劃化와 관련하여 말한 戰略變數로서의 非數量化要因에 대한 力點等 批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Myrdal은 최근 가령 저축율을 10%이상으로 올려야 하느니, 稅收를 國民總生産의 17%까지 引上하여야 하느니 하는 Rostow 流나 A. Lewis 流의 開發理論과는 그 모습을 크게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VI

남「아시아」는 西歐나 共產圈과는 判異한 計劃化的 第3世界 (A Third World of Planning)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모두가 計劃的 要素의 導入으로 즉 F. A. Hayek의 말을 빌리면 意圖된 調和의 導入으로 自然的 調和를 補完하며 社會的 調和를 이룩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西歐의 福祉國家的 經濟計劃은 그 대표적인 것이며 公産권의 計劃化는 自然的 調和를 意圖된 調和로 代替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남「아시아」에서의 計劃化는 共產主義計劃化나 福祉主義計劃化와는 판이하다고 Myrdal은 말한다. 共產主義計劃化의 基調는 K. Marx의 *Das Kapital* 第2卷에서의 유명한 二部門分割畵마 (two-departmental schema)와 擴大再生産理論에 근거하고 있다. 經濟發展 즉 擴大再生産은 生産手段生産部門인 第1部門의 先行的 發展에 의해 觸發되며 가능해진다는 理論的 根據에서 共產主義計劃化의 基本戰略은 第1部門에 해당하는 重化學工業優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非共產世界에서의 計劃化와는 本質的으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아시아」의 計劃化는 그런 基本戰略면에서는 그들의 理論的 偏好의 形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西歐

의 福祉主義의 計劃化와 같으나 南「아시아」의 그것이 西歐의 그것과 현저한 相異를 갖게 하는 것은 南「아시아」의 計劃化에는 平等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具體化되어 있다고 Myrdal 은 말한다. 사실 Myrdal 의 定義대로 한다면 西歐의 福祉國家는 19세기後半이후의 강력한 國民的 統合政策 (policy of national integration)의 결과 거의 同質의인 國民化했으므로 福祉國家的 計劃化는 成長템포와 調和를 適正化한다는 것만이 基本目標가 될 수 있다. 그러나 地域間 産業間 階層間의 不平等이 큰 저개발국가에서는 平等에 대한 강력한 욕망은 計劃化를 통하여 실현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Myrdal 은 計劃化는 近代化이테올로기의 知的 基盤을 이루는 것이며 가난하고 自然發生의인 發展動因이 없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한다. 計劃化이테올로기는 方法面에서는 合理主義的이고 結論面에서는 干涉主義의인데 政府干涉이 요청되는 근본이유는 첫째 경제발전의 先行要件인 輸送, 發展, 灌溉 등 소위 社會間接資本을 마련할 때 소요되는 막대한 資本需要때문에 정부가 이를 담당하는 데서, 둘째 현대기술이 더욱 더 정부로 하여금 投資 및 企業에 관여케 하는 데서, 셋째 外國資本이 政府間베이스로 供與된다는 데서, 넷째 官吏가 企業家보다 유능하다는데서, 그리고 끝으로 國際機構, 外國政府 및 外國企業까지도 이를 바란다는 데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私企業 특히 外國企業에 대한 敵愾心도 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저개발국가에서도 計劃化의 推進勢力이 現狀에 利害關係를 갖고 이 幻滅的인 世界를 유지하고자 하는 私心을 가진 政治家, 計劃樹立者, 官吏, 專門家, 經濟人 등 上層사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과 다음 計劃化가 態度, 機構, 낮은 生活水準, 영양부족, 不健康, 낮은 教育水準 등 저개발국을 위하여 결정적인 요인을 疎外하고 그대신 安易하게 雇傭, 貯蓄, 投資, 產出品 등에 의한 西歐模型을 計劃化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두가지 이유에서 처음부터 致命的인 결점을 가지고 시작된다. 그때문에 南「아시아」에서의 計劃化는 당초의 要望 또는 意圖와는 달리 오히려 不平等을 深化시킨다고 Myrdal 은 批判한다.

한편 西歐는 重商主義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發展過程에서 온갖 統制가 줄어들어 人間에 의한 支配가 法에 의한 支配에 대체되는 自由主義의인 세월을 경험하였고 특히 行政裁量에 의한 통제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반하여 南「아시아」에서는 오히려 裁量的 統制가 選好되고 있는데 能力과 誠實이라는 資質을 갖춘 行政官吏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고 따라서 그러한 정책에 의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道德의으로도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Myrdal 은 생각한다. 計劃化를 통한 近代化라는 變化過程에서 나타나는 딜레마는 變化의 速度, 범위

와 方向, 計劃化의 基本單位選定, 「밑으로부터의 創造」, 勞動組合, 自發的 參與와 創意性, 脆弱한 國家 (soft state, 즉 정부가 市民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 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할 때 남「아시아」에서는 社會各層 그리고 面面相村에 이르기까지 보다더 紀律이 강화되지 않는 한 計劃化에 의한 급속한 발전은 굉장한 곤란을 당할뿐만 아니라 거의 無望하기조차 하다고 Myrdal 은 斷定한다.

計劃化過程에 국민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制度的 下部構造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方法이 있다. 하나는 嚴格한 命令에 의하여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獨裁的 共產主義國家의 理想型인데 이는 강력한 정부와 行政組織, 강력하게 훈련된 單一の 政黨, 그리고 정부와 黨의 支配를 末端에 이르기까지 전달하는 基幹要員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한 것이 整備되지 않은 남「아시아」에서는 다른 하나의 길인 西歐的인 組織國家, 즉 部門別, 職業別 分權化와 大衆參與라는 理想에 執着하게 된다. 그런데 西歐와 남「아시아」諸國사이에는 本質的인 條件의 相異가 있으므로 現代的인 下部構造는 漸進的, 自發的으로 造成되지 못하고 政府의 政策保護 및 干渉에 의해 造成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에 남「아시아」는 놓이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制度的 下部構造도 西歐的인 것과는 달리 上部로부터의 영향력을 단순히 下部에 전달하기만 하는 따라서 民主的 計劃化의 理想과는 撞着될 위험성이 있다고 그는 본다.

人口壓力이 크고 가난이 심한 나라일수록 計劃化의 경향이 강하다는 Myrdal 의 計劃化에 관한 論議도 결국은 計劃化推進勢力이 기존의 利害關係와 偏見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 計劃化의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 유행하는 直接的 生産活動 및 輸送, 에너지라는 狹義의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產出高概念에 의한 것보다는 經濟活動의 積極적인 主體인 인간에 대하여, 그 教育, 營養, 健康等 質的인 측면을 강조하는 편이 오히려 效率的이라는 것, “급속하고도 평화적인 진보를 위해서는 所得에 전면적인 上限을 설정하여 낭비적 소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Gadgil 의 主張을 引用한데서 보듯 社會正義의 俱現이 計劃化의 실천에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본다.

VII

경제적 평등과 아울러 政治的 平等도 남「아시아」에서는 요원하다. 하기는 극단적으로 低開發된 국가에서 永續的이며 效果的인 政治的 民主主義가 실현된 예는 없다. 議會民主主義를 성공시킨 소수국가의 하나인 印度에서도 선택된 극소수의 上流市民이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 特權의 地位의 확보를 위하여 政治權力을 이용하고 있다. 初期條件의 差異

가 여기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西歐에서는 民權은 피흘려 爭取된 것이며 따라서 市民의 權利는 國民國家와 同一視되게 되었다. 그러나 남「아시아」에서의 民權은 支配層에 의해 부여된 것이어서 국민의 同化와 國民國家形成過程에의 책임있는 그들의 參與가 중대한 속제로 남아 있다.

남「아시아」에서의 獨裁는 逆說的으로는 일종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라고 Myrdal 은 말한다. 즉 남「아시아」의 국민에게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投票할 權利를 박탈하는 것이 일부 국민들로부터만 투표할 權利를 박탈하는 것보다는 더 民主的이라고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남「아시아」에서의 獨裁에 대한 西歐의 反應은 冷戰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다. 그들은 「고딘더옴」獨裁, 「아유브칸」의 軍事獨裁, 태국의 軍事獨裁는 反共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지지하면서도 「인도네시아」, 「버마」의 獨裁에 대하여서는 그 急進의 民族主義政策과 容共의 態度때문에 격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Myrdal 은 남「아시아」에서는 Marx 의 階級鬭爭理論模型에 맞는 政治的 進展은 없다고 보고 있다. 右翼反動은 反動的 對象을 못찾고 있는 형편이며, 프롤레타리아革命도 있는 적이 없다. 議會民主主義의 失敗와 獨裁化에 있어서도 外部的 要因 특히 共產主義의 작용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議會民主主義에 대신할 것으로는 近代化初期에 西歐가 겪은 上流階級政府에 의한 支配가 있는데, 남「아시아」에서는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다른 代案으로 등장하는 것이 군대이다. 그런데 이것은 無價値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적어도 현대적인 군대조직은 目的에 대한 수단의 合理性을 터득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 일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紀律을 지니고 있다. 한편 급격한 경제발전과 그 果實의 大衆에의 平等分配가 없으면 共產化한다는 歐美諸國, 특히 미국의 염려는 그들이 공산주의자 이상으로 Marx 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의 實證밖에 안된다고 Myrdal 은 말한다. 이러한 공포는 “현대에 있어서는 期待上昇의 革命 (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 때문에 窮乏化가 없어도 共產革命이 가능하다”는 見解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그는 판단한다. 남「아시아」에 관한 共產化는 社會的, 政治的 變化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남「아시아」에 광범하게 퍼진 腐敗에 관한 民間傳承(folklore of corruption)에 대해 그 原因을 의당 西歐처럼 발달했어야 할 經濟生活에 있어서의 利潤動機 및 市場行動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西歐에서는 그 根絶에 상당한 정도까지 성공한 公共生活에 있어서의 그것은 아직 추방되고 있지 못하며 西歐와는 다른 의미의 「市場」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어디서, 언제, 또 어떻게 個人的 利益을 얻느냐 하는데 대한 慣習의 差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남「아시아」는 Furnival 이 지적한 의미 그대로 二重社會

이며, 그 경향은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이역시 社會全體에 대한 忠誠心을 적게 하여 부패를 조성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裁量權이 큰 것, 좁은 市場을 둘러싼 外國企業의 경쟁이 모든 水準의 政府次元에서의 부패를 조성하는데 그러한 경향은 日本이 가장 심하고 「프랑스」, 미국, 독일이 그다음을 달리고 있다고 Myrdal은 말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는 國際商工會議所가 主體가 되어 歐美人의 亞阿低開發國家內에서의 그같은 犯法行爲를 本國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處罰하도록 하여보자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지만 번번히 默殺되고 말았다고 한탄하고 있다.

VIII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Asian Drama*는 低開發 혹은 低開發國의 經濟問題를 *vantage point*로 하여 國際經濟社會問題를 분석한 Myrdal의 一連의 勞作의 綜合 또는 完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n American Dilemma*, 1944 및 *Challenge to Affluence*, 1963 등에서 보여진 成熟國家의 經濟社會問題와 低開發國의 문제를 종합한 하나의 統合된 國際經濟理論을 定立한다는 것, 그리고 그결과를 *Realities and Illusions in regard to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 1955이나 *Beyond the Welfare State*에서 試圖된 政治問題와의 綜合이 항상 幅넓은 입장에서 社會에 관한 一般理論 (theory of a society)을 모색해온 社會科學者로서의 Myrdal에게 期待되는 앞으로의 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식 나이로 금년에 古稀에 달한 그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斷言하기 어렵지만 Myrdal을 거쳐서 Myrdal을 超越하려고 熱望하는 젊은 經濟學徒들에게는 최종적인 跳躍板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授]